For God · For Nation · For Peace
KIMS Newsletter

제 90 호

2022 년 5 월 18 일

1. 해양이슈와 정책(1)

2. 해양이슈와 정책(2)

3. 해양이슈와 정책(3)

4. 해양이슈와 정책(4)

1.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푸틴의 입장은?

▶ 발행기관: Financial Times
▶ 저　　자: Max Seddon and Richard Milne
▶ 일　　자: 2022년 5월 17일
▶ 개　　요

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 푸틴은 두 국가의 나토 가입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나토군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들여온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음. 푸틴보다 오히려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나토 회원국 중 하나인 터키임.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절차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음. 한편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새로운 국가의 나토 가입 절차가 통상 4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다는 점을 고려해,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 전에 공격받는다면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음.

원문 링크 클릭

2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-인도 관계

▶ 발행기관: South China Morning Post
▶ 저　　자: Joshua Cartwright
▶ 일　　자: 2022년 5월 10일
▶ 개　　요

지난 2015년, 미국과 인도는 제트엔진과 항공모함 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음. 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"인도제조(Made in India)" 사업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강화 노력의 산물이었음. 하지만 2019년 양국은 기술협력 분야를 한 단계 낮추기로 합의했음. 이는 두 국가의 관계가 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.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양국이 공통된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쿼드를 비롯한 다자협력체가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음.

원문 링크 클릭

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For God · For Nation · For Peace
KIMS Newsletter

제 90 호

2022 년 5 월 18 일

1. 해양이슈와 정책(1)

2. 해양이슈와 정책(2)

3. 해양이슈와 정책(3)

4. 해양이슈와 정책(4)

<KIMS 카톡 채널 추가>

3. 스네이크섬(Snake Island)의 전략적 중요성

▶ 발행기관: Naval News
▶ 저　　자: H I Sutton
▶ 일　　자: 2022년 5월 11일
▶ 개　　요

러시아의 모스크바호 상실로 인해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북부 흑해 영공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되었음. 특히, 우크라이나의 TB2 드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전황을 바꿔놓고 있음. 스네이크섬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 점령한 흑해 서쪽 끝에 위치 섬임. 러시아는 크림반도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임. 하지만 모스크바호의 침몰로 인해 대공방어능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스네이크섬은 우크라이나군의 손쉬운 타겟이 되고 있음.

원문 링크 클릭

4. (인터뷰) 미국 최초의 여성 항모 함장은 누구인가?

▶ 발행기관: CNN
▶ 저　　자: Brad Lendon, Blake Essig and Emiko Jozuka
▶ 일　　자: 2022년 5월 17일
▶ 개　　요

51세의 바우언슈미트(Bauernschmidt) 대령은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항공모함 여성 함장으로 부임했음. 그녀는 미 해군 항공모함 11척 중 에이브러햄 링컨(USS Abraham Lincoln)함을 지휘하고 있음. 바우언슈미트 함장은 항공과 장교로 임관하여 다양한 요직을 거쳤으며, 여성 최초의 항공모함 함장이 된 것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음. 그녀는 미 해군 내 여성장교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, 어떤 임무가 떨어졌을 때, 단순히 임무 완수만을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.

원문 링크 클릭

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